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액보험 투자 정보 가이드

변액보험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펀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카디프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금융시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변액보험을 관리해보세요!



CARDIF GUIDE <2019.1>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 본 자료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제공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및 투자결과에 대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9-010호(2019.1.10)

##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

01

### 국내 주식

#### KOSPI 투자심리 위축은 지속될 전망. 다만,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승

- 단기: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향후 한국 수출 부진 우려 등으로 KOSPI 시장은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박스권 흐름 지속될 전망. 다만 최근 KOSPI 급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은 시장 바닥을 지지할 것
- 중기: 글로벌 경기 우려와 이에 따른 주요국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KOSPI 투자심리 위축은 지속될 전망. 다만 밸류에이션 매력과 미중 무역분쟁 타결 기대감,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 가능성은 KOSPI 레벨을 지지할 전망

02

### 국내 채권

#### 1월 채권시장은 약보합 장세 예상

- 단기: 최근의 지속된 강세로 가격부담감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국고채 발행 정상화와 회사채 수요예측 재개 등으로 최근의 시장 강세를 견인했던 공급부족 현상 역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가격부담과 채권공급 증가 등으로 1월 채권시장은 약보합 장세를 보일 전망
- 중기: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대내외 금리 역전폭 확대에 대해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논란은 지속될 전망. 하지만 국내 추가 금리인상 횟수는 많아야 1차례에 그치면서 통화긴축 마무리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03

### 선진국 주식

#### 미국 비중 확대 접근은 긍정적

- 미국: 매크로 여건이 소폭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견조한 상황. 유가 하락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타난 점 역시 할인을 측면에서 긍정적. 미중 보호무역 이슈 및 정부 섀다운 등의 요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12월 조정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 현 수준에서 비중확대 접근이 긍정적임
- 유럽: 프랑스 개혁 반발 및 이탈리아 2019년 예산안 관련 우려는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그동안의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나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부과 등 이슈가 남아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04

### 신흥국 주식

####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 지속 및 중국 경기 둔화 가속

- 인도: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인도 주가지수의 우호적인 시각은 지속될 전망. 유가 약세도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긍정적으로 작용. 다만 이미징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는 불안 요인
- 중국: 미-중 무역분쟁 이슈와 함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점이 상해 증시에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 경기 둔화가 가팔라짐에 따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확대 여부에 주목할 필요

05

### 해외 채권

####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였으나 서서히 상승 재개 예상

- 12월 FOMC에서 2019년 기준금리 점도표가 3차례에서 2차례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유가 급락 등이 겹치며 금리 가파르게 하락. 다만 고용 및 소비 여건 고려 시 현재 금리 하락폭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 서서히 상승세 재개 예상

06

### 원자재

#### 유가는 약세 지속,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금 가격은 우호적 흐름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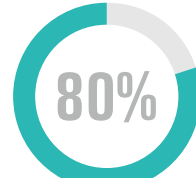
- 에너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와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유가는 약세 지속. 다만 최근 유가 하락이 과도한 가운데, OPEC+의 감산과 미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성 감소에 유가는 바닥이 지지될 전망
- 금: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금 가격은 우호적인 흐름 지속할 전망. 경기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텝스 약화와 달러화 강세 완화도 긍정적

## 안정추구형 투자자

투자손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그래도 자산 중 일부는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마음은 필요합니다.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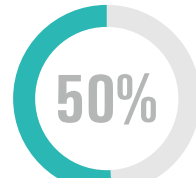
국내채권형

## 위험중립형 투자자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자세를 갖고 있는 고객입니다. 고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적절한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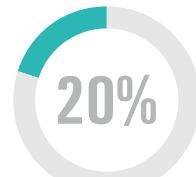
국내채권형

## 성장추구형 투자자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고객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섹터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국내	주식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향후 한국 수출 부진 우려 등으로 KOSPI 시장은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박스권 흐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KOSPI 급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은 시장 바닥 지지할 것	글로벌 경기 우려와 이에 따른 주요국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KOSPI 투자심리 위축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밸류에이션 매력과 미중 무역분쟁 타결 기대감, 연준의 완만한 금리인상 가능성은 KOSPI 레벨 지지할 전망이다
	채권	최근의 지속된 강세로 가격부담감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국고채 발행 정상화와 회사채 수요예측 재개 등으로 최근의 시장 강세를 견인했던 공급부족 현상 역시 1월부터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가격부담과 채권공급 증가 등으로 1월 채권시장은 약보합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대내외 금리역전폭 확대에 올해에도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1) 민간부문의 수요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율 둔화 등으로 올해 국내 성장률은 작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2)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약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추가 금리인상 횟수는 많아야 1차례에 그치면서 통화긴축 마무리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레벨 부담에도 불구하고, 통화긴축 마무리 국면 진입 인식 및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상반기 채권시장은 횡보세 예상
해외선진	미국	매크로 여건이 소폭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견조한 상황. 유가 하락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타날 점 역시 할인을 측면에서 긍정적. 미중 보호무역 이슈 및 정부 섣다운 등 요인은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하나 12월 조정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 현 수준에서 비중확대 접근 긍정적	2월 말 시한 내 미중 무역 합의 도출 여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예산 집행 등의 변수가 맞물리며 상반기 흐름 결정될 것으로 판단. 다만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 및 경제 펀더멘탈 고려 시 분할 매수 접근 추천
	유럽	프랑스 개혁 반발 및 이탈리아 2019년 예산안 관련 우려는 진정국면에 접어 들었으나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그 동안의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거나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부과 등 이슈 남아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서서히 선진국 중앙은행발 유동성 축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고, 시클리컬 업종 비중이 높은 유럽의 타격이 우려. 다만 그 동안의 상대적 부진을 고려해 중립 의견 제시
	일본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속에서 엔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로 돌아선 점은 엔화 가치와 역상관계가 높은 일본 증시에 부정적. 다만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상관관계가 다소 약해진 데다 낮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등을 고려 시 엔화 강세 진정 후 가격 하단 지지 예상	보호무역주의 영향은 다소 엇갈리나 내수 개선 흐름이 나타난 점은 증시 체력 개선에 우호적 영향 미칠 전망이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진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10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악재가 남아있는 만큼 중립적 시각 유지

섹터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해외이머징	브라질	친기업 성향의 보우소나루가 브라질 대통령에 따라 브라질 증시 우상향 지속될 전망. 향후 친기업, 사회보장제도 축소 등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음.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이머징 자산 내에서 비교적 선방할 것으로 판단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영향으로 브라질 증시도 변동성 확대될 것. 향후 시장 개방 및 재정 개혁에 대한 기대감에 타 이머징 국가 대비 높을 성과가 전망되나, 점차 기대감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에 주목할 필요
	러시아	최근 유가 급락에 따라 러시아 증시에 대한 매력도도 낮아진 상황. 다만 연준의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 완화는 달러화에 민감한 러시아 증시에 우호적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이에 따른 금융/상품시장 변동성 확대에 러시아 주식시장도 변동성 커질 전망. 다만 유가 급락에 따른 반등 가능성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텔스가 완화되면 주식시장 바닥 지지될 것
	인도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인도 주가지수의 우호적인 시각은 지속될 전망. 유가 약세도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긍정적으로 작용. 다만 이머징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는 불안 요인	무역분쟁 이슈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확대 국면에서 인도의 견조한 경제 성장 전망은 인도 주식시장 지지하는 요인. 유가 약세도 인도 주가에 긍정적.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주식시장 상단 제한할 것
	아세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ASEAN 국가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 떨어뜨리는 요인. 글로벌 물동량 감소도 수출 중심의 ASEAN에 부정적. 다만 최근 달러화 강세 완화에 주가 하락 제한적일 전망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흥국 자금 유출시 ASEAN 금융시장도 영향 받을 것.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텔스가 중요. 연준의 완만한 금리 인상시 ASEAN 증시는 하단 지지할 전망
해외이머징	중국	미중 무역분쟁 이슈와 함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점이 상해증시에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 경기 둔화가 가팔라짐에 따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확대 여부에 주목할 필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요국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중국 경기 모멘텀 둔화에 상해증시는 부진한 흐름 이어갈 전망. 긍정적인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나 중국 정부의 강도높은 경기 부양책이 부재할 경우 향후 중국 증시의 큰 폭 반등 기대하기 어려울 것
	홍콩	중국 경기 둔화 지속에 홍콩도 변동성 확대 지속될 전망. 다만 과도한 주식시장 약세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가능성에 주식시장의 바닥은 다소 지지될 전망	중국 경기가 추세적인 둔화 흐름을 보임에 따라 홍콩 주가지수도 부진한 흐름 지속될 것. 미중 무역분쟁 협상 타결이나 중국 정부의 강도높은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투자심리 부진한 흐름 이어질 전망
해외채권	채권	12월 FOMC에서 2019년 기준금리 점도표가 3차례에서 2차례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유가 급락 등이 겹치며 금리 가파르게 하락. 다만 고용 및 소비 여건 고려시 현재 금리 하락폭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 서서히 상승세 재개 예상	상반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가 관건이나 펀더멘탈을 고려시 올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70%로 보는 시장의 판단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 연준의 완만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달러화 강세 제한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 완화시 금리 오름세 재개 전망
대체투자	유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와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유가는 약세 지속. 다만 최근 유가 하락이 과도한 가운데, OPEC+의 감산과 미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성 감소에 유가는 바닥이 지지될 전망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미국 및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 증가,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유가는 상승 동력이 크지 않을 전망.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위전망되는 상황에서 공급 축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가는 부진한 흐름 지속할 전망
	금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금 가격은 우호적인 흐름 지속할 전망. 경기 둔화에 따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텔스 약화와 달러화 강세 완화도 긍정적	투기적 금 매수 포지션이 여전히 크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가 점차 유입되며 금 가격은 완만한 우상향 보일 전망.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텔스 약화도 금 가격 상승 요인

### S&P500지수

12월 미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줄곧 상승하던 미국 증시는 연말을 앞두고 지난달 갑작스런 주가 등락이 반복되며 변동성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리인상 중단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갈등 상황 및 연방정부 폐쇄, 멕시코 장벽이슈 등 악재의 영향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었습니다. 금리인상과 트럼프의 입지 및 백악관과 민주당 사이의 대립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시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미국 경제의 침체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제껏 최대 불안요인이었던 미-중 무역갈등은 G2 정상간의 합의와 완화의 조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 EUROSTOXX50 지수

12월 미 FOMC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12월 중순 이후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은 재차 상승하였으며, 연말을 앞두고 미국발 정치 리스크가 확산되며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와 함께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유럽은 미-중 무역분쟁, 미 연준 긴축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이탈리아 예산안, 노딜 브렉시트 리스크와 같은 유로존 내 불확실성이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곧 예정된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합의안 가결에 따른 소프트 브렉시트가 성사될 확률이 다소 높으나,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 HSCEI 지수

중국의 신규 수출 및 고용, 소매판매 관련 세부 경기 지표들이 하락하였고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50.2에서 49.7로 하락하는 등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7월 이후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잇따른 기준율 인하 및 재정지출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올해 상반기 중에는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경기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한 금리인하 및 위안화 절하에 대한 압력과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제공: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어려운 용어... 한숨 쉬지 말고, 쉽게 알아보아요!

**밸류에이션(Valuation)?**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평가 가치를 이야기하며, 주식의 경우 PER(주가-순이익 비율)이나 PBR(주가-순자산가치 비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산업 군 안에서도 순이익 규모나 순자산 가치에 비하여 특정 주식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의 준말로 경제 정세나 경기 전망을 검토하며 통화공급량이나 단기 금리 등 단기금융정책의 목표를 결정하는 의사체이며, 위원회의 의사록은 미국 경기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펀더멘탈(Fundamental)?** 기업이나 경제의 기본기를 이야기하며 기업의 경우, 실적이나 순이익, 경제의 경우 성장성이나 안정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기업이나 경제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이 개선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시장 상황 파악

이번 달 핫이슈 및 자산시장별 투자 전략 참고

STEP 01

## 나에게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성향별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STEP 02

## 펀드 관리

수익률 관리,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기능 활용

STEP 03

### 🔄 펀드 변경 안내

#### 변경 유형



#### 적립비율 변경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적립비율을 변경



#### 투입비율 변경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 적립비율+투입비율 변경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과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 변경 방법



#### My Cardif

홈페이지 : [www.cardif.co.kr](http://www.cardif.co.kr)  
APP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카디프생명' 또는 '마이카디프' 검색



#### 전화

콜센터 : 1688-1118



#### 은행/보험사 방문

보험상품 판매사 지점 또는 보험사 직접 방문

**기준일** 「펀드 변경 요구일 +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 적용  
\*영업일 기준은 개별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 횟수** 연 12회 이내 가능

**수수료** 없음(다만, 차후 약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 가능)



#### 📌 변액보험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액보험 계약은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